

# ‘동장군 맹위 속’ 온열기구 화재 잇달아...“주의요망”

기온 강하에 난로·히터 사용 ↑  
나주·순천·완도서 연이틀 화재  
광주·전남서 연 평균 46회 발생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연초부터 겨울 한파가 거세지면서 난방용 온열기구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화재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에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오후 잦은 광주 서구 양동시장.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 양동시장 상인들 대부분은 기름난로나 전기히터 등 온열기구를 가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상인들이 재고를 나르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난로 등을 꺼두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였고, 손님들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히터의 전선이 발에 채거나, 난로 본체를 몸으로 건드리는 등 아슬아슬한 광경이 빈번하게 목격됐다. 특히 제품이 담겼던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온열기구와 가까이 놓여있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양동시장은 화재 취약지역이지만, 외부와 분리되지 않은 점포의 특성상 겨울철 난로와 히터 등 온열기구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큰 곳이다. 당연하게도 대형 화재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다.



지난 7일 오후 1시17분께 나주 동강면 장동리의 한 농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7분여만에 진화됐다. 나주소방 제공

이런 부주의는 대부분 화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겨울철 온열기구 화재사고는 △광주 19건(재산피해 약 8881만원) △전남 120건(재산피해 약 14억9606만원) 등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연평균 46회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에도 추워진 날씨 탓에 온열기구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나주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17분께 나주 동강면 장동리의 한 농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37명과 차량 13대를 동원해 약 2시간 37분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사고로 창고 내부와 감 900상자가 소실되는 등 약 5662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감 저장·선별장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던 중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가연물에 연소 확대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온열기구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2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1시32분께 순천 와룡동의



8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한 점포에서 전기히터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점포 내부에 사람이 없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됐다.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1개 동이 전소되고 화목보일러 및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약 82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11분께 완도 보길면의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33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보일러실과 일부 집기류가 소실돼 약 138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두 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온열기구 과열 및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난방기구 주변 인화물질

제거’, ‘용량에 맞는 콘센트 사용’, ‘미사용시 온열기구 전원차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온열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배승용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은 온열기구 사용이 늘고, 가연물질이 불에 타기 쉬운 조건을 갖춰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온열기구 사용 시 가연물과의 거리를 이격해서 적재하는 등 사용자가 올바른 사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다른 세력 조폭에 흥기 휘둘러 40대, 범행 부인

주점서 흥기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  
갈등을 빚던 다른 조지폭력배에게 흥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폭력배 A(4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광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또 다른 폭력조직 B씨에게 흥기

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노래방에서 B씨와 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흥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속행한다. 민현기 기자

## 공금 횡령해 인터넷 방송 BJ 후원한 30대 징역 3년

병원 총무과 근무하며 횡령  
자신이 일하는 병원 자금 수억원을 횡령해 온라인 방송 BJ에게 후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4억9733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병원 입·출금 계좌 관리, 거래처 결제대금 집행,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진료비로 수납된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착복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병원 계좌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환불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했고 컴퓨터 등 사적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빼들었다. 이렇게 빼들린 상품권이나 현금을 올라

인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스트리머(BJ)들에게 후원하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고용 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돈을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 규모도 약 5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